

##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말씀: 민 16:31-50

요절: 민 16:31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목은 “땅이 자기 입을 벌려”입니다. 매년 세상에는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진 희생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인프라 시설의 붕괴 등으로 인해 입는 피해입니다. 2011년 일본 간토 대지진에 15,800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실종되었고 대피 생활 중 죽은 사람을 합하면 희생자가 2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지진에서도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삼킨 것과 같은 현상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지금도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반역자들의 죽음이 일반인들이 죽는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초자연적 죽음, 독특한 죽음이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갈라진 바다로 따라왔다가 다시 바다가 합쳐짐으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땅이 갈라져 입을 벌려 사람들과 그들의 물건을 삼켰고, 다시 합쳐졌습니다. 때로 사람은 하늘의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있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지만 이런 피해는 종종 보고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초자연적인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일도 있었고, 하늘의 우박에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자 재앙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까지 그들이 보거나 듣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류가 파멸하기도 했고, 하늘의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죽음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죽음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반역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에게 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임과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사 행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민16:28)고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돌아온 일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가 하는 일이 주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일이란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회중들 위에 높여 분수에 넘치게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유업의 상속을 주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비난, 불평,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을 주께 맡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벧전2:23). 원수 갚는 일이나 보복은 성도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지만 사적인 복수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

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신32:35)고 합니다. 시편 94:1절,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시94:1). 모세는 이 일에 주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0: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히10:30). 모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매 그들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매”란 주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과 자신이 행한 일이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으로 죽거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마쳤을 때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죽을지 말했는데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 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민16:28-30).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만약 그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대언자이며, 그는 도리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반역자들이 주를 격노하게 하였음을 온 백성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주의 말씀, 주의 일을 확증해 줍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주의 심판은 깨달음을 줍니다. 믿음을 통해 깨닫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판을 통해 깨닫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최악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깨닫고 회개하면 그는 공물을 얻게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계2:21). 대환란 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앙,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건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계9:20,21). “돌이키지 아니하고...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멸망하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한 자들은 돌이키거나 회개할 줄 모릅니다.

모세의 말이 마치자 그들 밭의 땅이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의 지진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의 땅만 갈라졌습니다. 요즘 도시들에서 싱크홀(Sinkhole) 현상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일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도로의 지반이 침하되어서 구멍이 생기는 현상인데 차를 몰고 가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땅속으로 가라앉는 현상인데 대부분의 원인은 하수도관 손상 때문으로 봅니다. 지난 해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생긴 싱크홀이 4,088건이라고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포함해 그들 주변으로 땅 밑이 갈라졌습니다. 단순 지진이나 싱크 홀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하 수십 미터로 아래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32절입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32).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다단과 아비람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이 갈라졌으니 이들은 피할 길도 없었고 비명을 지르며 땅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장막이 통째로 땅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민26:11).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날 죽은 “고라에게 속한 사람

들”은 고라의 자손들이 아니라 고라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역대기상(상 6:31-48, 9:19)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 음악을 담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죄로 인해 죄 없는 그의 가족이나 자식들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은 고라와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겔18:1-4.

33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33). 다단, 아비람, 고라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지하 10 미터, 100미터의 지하 동굴이나 구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지옥이 있는 지하 세계의 구덩이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으로 삼는 동굴 구덩이도 아니고 우물 구덩이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덩이는 짐승들을 잡는 함정이 아닙니다. 이 구덩이는 계시록에 일곱 번이나 나오는 바닥없는 구덩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맞은 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눅16:26)고 했는데 바닥없는 구덩이는 지하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이곳이 열리면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대기가 어두워집니다(계9:2). 이 구덩이에는 아바돈(히), 아폴리온(헬)이라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계9:11). 여기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계11:7). 이 짐승은 한 때 이 땅에서 가룟 유다로 불렸습니다(계17:8). 바닥없는 구덩이는 사탄이 천년 동안 갇히고 봉인되는 곳입니다(계20:3). 다단, 아비람,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이곳으로 곧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어서 이 구덩이로 간 것은 이들이 처음일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킨 후 그들 위에서 닫혔습니다. 땅이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려 사람을 삼키고 입을 닫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포에 질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땅은 그들을 삼킴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그대로 되었을 때 그 장면을 본 회중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산 채로 불에 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34). 심판의 현장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고라가 땅이 갈라질 때 느꼈을 공포의 비명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땅 속으로 빠져들면서 소리를 질렀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반역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아래의 땅이 갑자기 갈라질까봐 두려움,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는 말은 그들도 이런 심판을 받을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고백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양심과 생각은 이미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회중의 백성들은 자기들 역시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았던 까닭입니다. 요한일서 4: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요일4:18). 이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34)는 회중들의 말은 죄에는 언제나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35절입니다.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린 이백오십 명을 소멸시켰더라.”(35).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각자 자기 향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론도 향로를 들고 나왔고 향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대하26:18). 이 율법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250명의 통치자들은 각자 자기 향로를 들었습니다. 향로를 들었던 250명의 통치자들은 주로부터 나온 불로부터 소멸되었습니다. 전에 이미 이상한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주로부터 나온 불로 죽임을 당한 적(레10:2)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불입니다.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라 성전 제단에서 나온 불입니다.

3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36). 주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신 후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50명의 통치자가 주로부터 **\*화형을 당한 후 그들의 죽은 사체 처리 문제나**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백성들의 민심을 추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향로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그가 불붙는 것 중에서 향로들을 취하게 하고 너는 그 불을 저쪽으로 흘리지니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37).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불붙는 것 중에서 향로를 취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향을 드리던 사람들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들고 나온 향로는 받으셨습니다. 향로를 취하라는 것은 향로가 주께 드러진 것이요, 주의 것으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통치자들은 죽었지만 향로는 엘르아살이 취해서 불신으로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 표적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37). 엘르아살은 사체들 사이에 놓인 향로의 불을 흠어 버리고 향로만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38절입니다. “이 죄인들의 향로들이 그들의 혼을 대적하였은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취해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을 만들게 하라. 그들이 그것들을 {주} 앞에 드렸으므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시니라.”(38). 주께서 정하신 제사장 직분을 부정하고, 각자 자기들이 스스로 주께 분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주의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 향로를 “**이 죄인들의 향로**”라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향로가 그들의 혼을 대적했습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8:36절,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잠8:36).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잠20:2). 고라와 그의 반역에 동참한 이들은 자기 혼을 해쳤고, 사망을 사랑했고,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드린 향로를 취해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향로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것들을 주 앞에 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러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을 만들면 누구나 제단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덮개를 볼 때마다 그것의 유래와 기원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음식을 볼 때 자신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덮개를 볼 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되리라”고 할 때 표적은 특별한 의미를 주는



어떤 것이란 말입니다.

39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향을 드릴 때 사용한 놋 향로들을 취하여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어”(39).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의 명령대로 불탄 자들이 향을 드릴 때 사용한 놋 향로들을 취해 제단의 덮개로 쓸 넓은 판들을 만들었습니다. 250개의 향로를 녹이거나 두들겨서 큰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표적이요, 기념물이 됩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론의 씨가 아닌 낯선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가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40). 향로를 취해 만든 제단 덮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했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씨가 아닌 낯선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40)란 말씀에서 향을 드리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독점적 권한이요, 의무임을 확증합니다. 다른 지파는 물론이고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면 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이것을 보고도 웃시야 왕처럼 직접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는 이가 있었습니다. 웃시야 왕은 그 일로 인해 이마에 나병이 솟았고 여생(餘生)을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아론의 씨가 아닌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기 위해 가까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일은 자기 혼을 대적하고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가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40).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용 싸인(Sign)으로 제단 덮개를 주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41). 주의 심판이 집행되던 날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던 회중들은 다음 날이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들은 주의 두려움을 잊어 버렸습니다. 주의 징계와 형벌, 심판을 목격했지만 이들은 하루 만에 다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41). 이들은 죽은 자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죽고, 그의 식솔들이 죽고, 250명의 통치자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와 불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재앙, 심판의 원인 제공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41)란 말은 이들의 죽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이 있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라와 죽은 이들의 죄와 심판, 죄와 형벌,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못하고 이 일을 정치 투쟁, 분쟁, 갈등으로 본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주고, 서로 화해를 했다면 그들이 죽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모두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얼굴을 땅에 대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적한 주의 진노를 돌이켜 오직 죄를 범한 핵심 멤버들만 처벌하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 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인재들을 잃었고, 교회에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이라고 여겨 불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주께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눅16:15).

42절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회중의 성막 쪽을 바라보니,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42).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회중의 성막을 보니 구름이 그것을 덮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가지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회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제 이들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루 전 그들은 순식간에 소멸당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미 경험적으로 백성들이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앞에 이르렀더라.”(43). 모세와 아론은 주의 심판이 끝났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불평했을 때 회중의 성막 앞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향한 주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증보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44).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역의 주동자들, 핵심 멤버들을 모두 처벌했지만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서는 반역자들과 뜻이 같은 이들이 있었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했을 뿐 그들 자신의 잘못이나 죄, 불법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시인하지 않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매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45). 주께서는 불평하는 무리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를 따르던 장로들을 비롯해 반역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그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전 휴거를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롯이 그 도시를 떠나기 전까지 소돔에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기 전까지 그들을 불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환란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크리스천들은 일어나 이 땅을 떠납니다. 이 진리가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회중을 떠나는 대신 주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회중들과 주 사이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해 증보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증보하였느니라.”(사53:12).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도록 증보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니”(46). 모세는 주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후 곧 바로 아론에게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아론이 하는 이 속죄의 사역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면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론에게 주의 진노,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주의 같은 역병이 이스라엘 안에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소나 양을 잡을 시간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지시로 번제 헌물이나 속제 헌물을 드리지 않고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취해 속죄했습니다.

47절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47). 성막 앞에 엮드렸던 아론이 회중의 한가운데로 달려갔을 때 이미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대적하던 백성들 속으로 향로를 들고 갔습니다. 이미 시작된 주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참혹한 현장 속으로 아론은 향로를 들고 갔습니다. 아론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치니라.”(48). 아론의 속죄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모세의 지시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이 날 백성들은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드린 향로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반역자들의 향로는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섰다는 말은 아론이 선 그곳에서 죽음이 멈추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곳에 아론이 섰고 아론이 섰던 자리 뒤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주의 재앙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향로를 든 대제사장 아론 앞에서 죽음이 멈추었습니다.

49절입니다.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더라.”(49).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250명의 통치자들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만 사천칠백 명이나 죽었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취해 달려갔을 때 이미 14,700명이나 죽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제 주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로 인해 불평했다가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는 대신 불평하고 반역했던 이들은 더 큰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 시간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격노를 충분히 보여 주고도 남습니다.

50절입니다. “아론이 회중의 성막 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재앙이 그쳤더라.”(50).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중의 성막 문으로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조직적 반역은 이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